

서반아어 동사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성에 관한 연구

김 은 경
(서울대, 서어학)

0. 서 언

서반아어 동사의 중요한 문법적 범주(categoría gramatical)의 하나인 접속법(modosubjuntivo)에 관한 연구는 일찌기 Vicente Salvá(1830)에 의해서 거론되고, 소위 전통문법이라는 명칭 아래 포함되는 A. Bello(1847), R. Lenz(1920), Gili Gaya(1964), RAE(1931, 1973)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지만, 접속법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문제점을 거론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분히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¹⁾ 부연하자면, 서반아어 동사에는 직설법(modos indicativo)과 접속법이 서로 다른 형태로서 대립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만족할 뿐 그 각각의 문장내의 출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서반아어에 적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는 E. Alarcos(1970), Mariner(1971), S. Ruipérez(1953) 등을 꼽을 수 있으며²⁾, 그 특징으로는

* 본 研究는 1989年度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Vicente Salvá의 문법은 1883년 Paris에서 출판된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를 참고할 수 있으며, 법이란 “발화시에 사람들이 동사의 의미를 참작하는 방법”(la manera con que al hablar consideramos la significación del verbo)이라고 했으며, 법을 부정법(infinitivo), 직설법(indicativo), 명령법(imperativo), 접속법(subjuntivo)의 네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접속법이란 “의형상 나타난 것이건 묵시적으로 짐작되는 것이건 상관없이 다른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동사의 형태”(tiene que ir unido a otro verbo, bien explícito, bien sobreentendido, que lo determina y con el cual se enlaza por medio de una partícula conjuntiva)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Salvá의 접속법에 관한 관점은 Andrés Bello의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1847)에 의해 이어지고, 후일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의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1973)에도 반영된다. Samuel Gili Gaya의 접속법에 관한 견해는 그의 저서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1961)에 나타나 있으며, 기본적인 흐름은 스페인 한림원의 *Esbozo...*와 거의 일치되고 있다.

의미대립(*oposición semántica*)과 대체(*conmutación*)를 통하여 동사의 문법적 범주를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하여 직설법과 접속법의 대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구조주의적 또는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과거 전통문법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법(*modo*)으로서 인정하던 명령법(*modo imperativo*)을 그 언어 기능상 특수한 영역(*función apelativa*)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法の 대립을 어디까지나 직설법과 접속법의 대립으로 축소화한 데에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경향의 연구들은 접속법과 관련된 제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형태적인 차원(*nivel morfológico*)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나다 하더라도 문장의 차원이 아닌 구 또는 절의 차원(*nivel sintagmático*)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맥에 출현하는 접속법내지는 직설법 형태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어떠한 이유 또는 근거로 하여 그러한 형태가 출현하는가 또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동일한 문맥에 무차별적으로 직설법과 접속법이 교호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주의적 방법론의 약점을 보완하여, 접속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시도된 것은 변형문법이 서반아어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의 연구논문에서 보여지는데, 초기에는 Stockwell, Bowen 및 Martin(1965), Ruwet(1966)와 Hadlich(1971)가 주로 변형문법의 통사론을 서반아어 동사에 적용하였다.³⁾ 접속법과 관련된 제현상들을 규칙화하는 작업은 그 대상을 어느 문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진 규칙들의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변형문법 학자들의 서반아어 동사에 대한 기술은 주로 서반아어의 전통문법내지 구조문법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문제점들을 명료하게 정리한 것 외에는

2) Alarcos Llorach의 접속법에 관한 그의 *Gramática estructural* (1969) 및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1978)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직설법을 포함한 서반아어 동사의 시제, 상, 법 일반에 걸쳐 다분히 형태적인 분류에 중점을 두었고, 후자에서는 법의 문제를 통사체계(*sistema verbal*)와 관련하여 대립관계로 설명하였다. Mariner는 “Triple noción en la categoría modal castellana” (*RFE*, 1971)를 통해서 서반아어 동사의 법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M.S. Ruipérez는 “Reseña de K. Togeby” (*Word* X, 1953)에서 Togeby의 법에 관한 구조주의적 관점을 재검토한 바 있다.

3) Stockwell과 그의 공동저자들의 *The Grammatical Structures of English and Spanish* (1965), Ruwet의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generativa* (1968) 및 Hadlich의 *A Transformational Grammar of Spanish* (1971)는 모두 서반아어 문법을 주로 1965년의 Chomsky의 Standard이론에 입각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서반아어 동사의 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심층적 분석을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서반아어 문법(주로 전통문법)의 내용을 규칙화하는 작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구하는 법의 교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론적 제시가 시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할 혁신적 설명이 부가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초기의 오류는 R. Lakoff (1968), Hooper와 Terrell(1974), Rivero(1977), Klein(1975) 등에 의해서 주목이 되었으며⁴⁾, 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통사적 차원(nivel sintáctico)을 넘어서, 언어외적 현상(fenómenos extralingüísticos)과도 관련하여 접속법의 생성을 설명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반아어 동사의 접속법과 관련된 제현상들 중에서 특히 접속법과 직설법이 서로 교호가 가능한 문맥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원인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접속법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제시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접속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서반아어를 제 2 외국어로서 습득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유발하는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접속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 도모 하자는 것이다.

1. 초기의 연구

앞서 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반아어 전통문법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접속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통문법이라는 용어자체가 풍기는 뉘앙스와는 달리, A. Bello(1847), Fernández Ramírez(1986) 및 la Real Academia Española (1973)의 저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적지 않아 수록되어 있다. 우선, 서반아어 문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A. Bello부터 소개해 보기로 하자.

1.1. A. Bello(1847)

Bello는 “법(modos)은 주절의 특정한 낱말이나 주절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동사의 활용어미”라고 정의하고⁵⁾, 접속법은 “dudar” 또는 “desear”와 같은 동사에 의해

4) R. Lakoff은 *Abstract Syntax and Latin Complementation* (1968)를 통해서 라틴어와 서반아어의 법에 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 Lakoff의 견해에 의하면 법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 기호(marker)에 불과한 것으로 서반아어의 접속법의 서로 다른 의미는 어디까지나 심층구조에 있는 추상적 동사(verb abstracto)가 가리키며, 관계되는 변형규칙을 통해서 종속문의 법을 결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종속문의 접속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본적인 법인 직설법에서부터 변형을 통하여 파생되는 것이라고 했다.

5) “Las inflexiones del verbo en cuanto provienen de la influencia o régimen de una palabra o frase a que esté o puede estar subordinado”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1981, p.327).

서 종속되거나, 종속될 수 있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또한, 직설법은 “saber”, “afirmar”와 같은 동사들이 부정의 의미를 갖는 요소의 개입 없이 종속절을 이끌 때 나타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즉, 접속법은 명령, 청원, 권고, 허가 등의 의미를 갖는 낱말들(넓은 의미로 ‘원망’(deseo)으로 통칭할 수 있는)에 의하여 이끌린 종속절에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이며, 직설법은 이와는 달리,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의 낱말들이 주절을 이루고 있을 때 종속절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Bello의 관점은 후일 Takagaki(1984)에 의해서 재확인된 것처럼⁸⁾ 접속법이 어디까지나 종속(subordinación)을 나타내 주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흔히 Bello의 관점을 논박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문에 있어서의 접속법의 출현(“tal vez sea él el ladrón”)은 다소 과장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심층구조의 “es probable que” 또는 “dudo que” 등이 표층구조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Bello의 관점은 비록 시대적으로는 전통문법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오늘날의 통사이론과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2. Gili Gaya(1961)와 RAE(1973)

서반아어 동사의 법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 Gili Gaya와 한림원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문법은 표현상 ‘말하여 지는 내용’(dictum)과 말하여 전달

6) “Llamamos subjuntivas comunes o del modo subjuntivo común las formas que se subordinan o pueden subordinarse a los verbos dudar, desear” (*Ibid.* p.330).

7) “Formas indicativas o de modo indicativo se llaman las que son o pueden ser regidas por los verbos saber, afirmar, no precedidos de negación” (*Ibid.* p.329).

8) T. Takagaki는 “Subjunctive as the marker of subordination” (*Hispania* 67, 1984, pp.248-256)에서 접속법과 직설법은 상호 보완적 분포(distribución complementaria)를 유지하며, 명사문에 있어서의 법은 (i) 주절의 의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ii) 직설법과 접속법은 분리되어 분석되어서는 아니되며, (iii) 법의 선택에 있어서 화용론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Takagaki가 제시하는 명사문의 접속법과 직설법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negative (falsity)		affirmative (truth)
	implicit negativity	
IND	SUBJ	IND

b. Implicit negativity

1. sufficient amount→subjunctive (marked mood)

2. insufficient amount→indicative (unmarked mood) (*Ibid.* p.250)

되는 내용이 ‘어떻게 화자의 심리와 연관하여 표현되는가’(modus) 하는 구분을 시작으로 하여, 서반아어 동사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대립을 ‘no realidad’/‘realidad’으로 축소하는데, 이 대립에 있어서 접속법이 ‘no realidad’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양성적으로 소지하는 요소이며, 직설법은 ‘realidad’을 음성적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했다.⁹⁾

또한, ‘no realidad’/‘realidad’의 대립은 화자의 심리상태 또는 “심리적 판단”(juicio mental)과 연관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긍정적 판단”(juicios asertorios), “의심스러운 판단”(juicios problemáticos) 및 “필연적인 판단”(juicios apodícticos)으로 3분되며, 이 중, “긍정적 판단”은 직설법을, “의심스러운 판단”과 “필연적인 판단”은 접속법을 유도한다고 정의한다.¹⁰⁾ 아울러, 접속법을 유도하는 두 가지의 판단은 각각 ‘가능성’을 표현하는 접속법(subjuntivo potencial)과 ‘원망’을 나타내는 접속법(subjuntivo optativo)을 유도한다고 본다.¹¹⁾

결국, 위의 두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은 법이란 문장내지는 문장으로 표현될 내용을 앞에 두고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며, 간접적으로 접속법은 그 판단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subjetivo)이며, 직설법은 ‘객관적’(objetivo)이거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no subjetivo)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법은 접속법의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다시금 전통문법의 기본적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Bello 및 RAE(1931)에 기술된 의미적 해석이 형태를 바꾸어 기술되었을 뿐 이렇다 할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 방법론상으로도 문법의 기술에 심리적인 판단 혹은 심리적 요소를 개입함으로써 관념적 논리와 언어의 논리를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3. E. Alarcos(1970)

서반아어 동사 전반에 걸쳐 연관된 제반 기능 및 형태상의 문제를 가장 일목요연

9) “La gramática estructural moderna mira las formas modales del subjuntivo y del indicativo como expresivas de la oposición no realidad/realidad; y debe advertirse que entre los dos miembros de la correlación, el primero (no realidad=subjuntivo) es el positivo, el miembro marcado diferenciador, mientras que el segundo (realidad=indicativo) representa la forma habitual e indiferenciada de expresión que se halla en todas las lenguas.” (RAE,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1973, p. 454).

10) Cfr. Gili Gaya, S.,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1961, p. 132.

11) Gili Gaya의 “Curso...” p. 134 및 RAE의 “Esbozo...” p. 455에 서술된 내용으로, 두 문법은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 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Alarcos는 앞서 살펴본 전통문법에서처럼 접속법을 따로 다루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접속법을 분류할 때 항상 사족처럼 붙어 그 분류의 장애가 되고 있었던 명령법(modus imperativo)을 서반아어 동사가 제공하는 법의 범주에서 과감히 제외시키고, 그 제의 근거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

언어의 일반적 기능 문제와 관련하여 명령법을 직설법과 접속법과는 별도의 기능에 속하는 범주로서 구분하는 작업은 Alarcos의 *Gramática Estructural*(195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Alarcos의 구조주의적 접근은 다분히 Hjelmslev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 측면이 응용적 측면보다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나, 1970년에 출판된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에서는 동사 구조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통해, 접속법이란 결국, 'matiz modal'을 양성적으로 대표하는 동사 형태로서 이와 같은 변별적 자질을 지니지 않는 직설법과 대립되며,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matiz modal'이 직설법 형태들 중에서 '미래'의 의미를 지니는 형태들의 구조 외적 사용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¹²⁾ 즉 서반아어 동사의 'matiz modal'은 다음의 세가지 단계로서 표현된다고 본다:

- a) Cero (canto, cantaba, canté)
- b) "Posibilidad-posterioridad" (cantaré, cantaría)
- c) Modalidad plena (cante, cantase-cantara)

따라서 'no realidad' 혹은 'irreal'한 의미의 'matiz modal'은 접속법이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자질이 아니라 직설법에서도 'posterioridad'의 의미를 갖는 형태들은 접속법보다는 하나 낮은 단계이지만 분명히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직설법과 접속법의 용례상 그 경계가 전통문법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명쾌한 것이 아니며, 상호간 대체가 가능한 문맥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 교호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2) Cfr. Alarcos Llorach, E., "Cantaría: modo, tiempo, aspecto"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논문은 Alarcos의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1970)의 p.118에서 제시된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단정’ (aserción), ‘전제’ (presuposición) 및 법

2.1. Hooper와 Terrell(1974)

접속법의 사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생성의미론의 방법론을 서반아어 동사에 적용한 Hooper와 Terrell의 연구가 기점을 이루고 있다.¹³⁾ 이 두 사람의 공동연구는 당시까지의 구조주의 또는 생성문법학자들이 접속법의 연구에 있어 그 초점을 통사적 관점에 둔 것에 반해, 의미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다. 즉, 접속법과 직설법의 사용은 ‘진위’(verdad), ‘단정’(aserción), ‘전제’(presuposición) 및 ‘예상’(anticipación)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개념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서반아어의 법은 발화된 문장 전체가 문장 내에 포함된 명제의 진위에 대하여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Hooper와 Terrell은 주어진 명제를 앞에 놓고 화자가 취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태도를 아래와 같이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명사문을 종속문으로 갖는 복문에서 종속문에 표현된 명제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가지의 의미적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는 ‘단정’(aserción)이고, 다른 하

표 1. (p. 488)

의미적 개념(Noción semántica)	동사의 종류(Clase verbal)	법(Modo)
단정(Aserción)	(A) Asertivos	Ind.
	(B) Informativos	Ind.
전제(Presuposición)	(C) Acto mental	Ind.
	(D) Explicativos	Subj.
비단정 및 비전제(Ni aserción ni presuposición)	(E) Dubitativos	Subj.
	(F) Imperativos	Subj.

13) Hooper와 Terrell은 공동연구논문 “A Semantically based analysis of mood in Spanish” (*Hispania*, 57)이 생성의미론적 관점에서 서반아어 동사의 법의 교호를 설명하는 첫번째의 논문이며, 1975년에는 J. Hooper가 단독으로 “On assertive predicates” (*Syntax and Semantics* Vol. 4, Kimball)이 뒤를 이어 연구를 확대하였고, T. Terrell은 다시 “Assertion and presupposition in Spanish complements” (1976,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Luján..., Georgetown Univ.)를 발표하여 1974년 Hooper와 함께 연구한 ‘단정’(aserción) 및 ‘전제’(presuposición)의 의미적 개념이 어떠한 동사의 분류를 통해 법의 교호에 작용하는가를 재확인한 바 있다. 1976년의 Terrell의 연구 (“Assertion and...”)는 1974년의 Hooper와의 공동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동사의 분류의 세부사항을 수록하였으며, 또 이와 같은 동사의 의미적 분류를 뒷받침하는 통사적 증거를 확대하였다.

나는 ‘전제’(presuposición)이다. Hooper와 Terrell은 1974년의 “A Semantically based analysis of mood in Spanish”에서는 ‘단정’이라는 개념을 ‘전제’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밝힐 뿐 어떠한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으나, Terrell의 1976년의 “Assertion and Presupposition in Spanish Complement”에서는 “서술문(oración declarativa)내에 표현된 명제’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화자는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발화된 내용의 명제가 참이라는 주장”을 할 때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한다.¹⁴⁾

1) María irá a la playa con nosotros. (Terrell, 224)

화자는 1)의 경우처럼 어떠한 수식도 없이 사실이라고 믿는 바를 ‘단정’할 수도 있고, 자신이 믿는 바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표현할 수 있다.

2) Me parece (creo, es seguro, etc.) que María irá a la playa con nosotros. (Ibid.)

또는 다른 사람의 ‘단정’을 인용하여 서술할 수도 있다.

3) Juan me dijo (confesó, comunicó, explicó, etc.) que María iría a la playa con nosotros. (Ibid.)

한편, ‘전제’(presuposición)라는 개념은 언어학 및 철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Hooper와 Terrell은 Kiparsky(1971) 및 Keenan(1971)의 정의를 인용하여 사용하는데,

4) Le sorprendió que María se enojara. (Terrell, 222)

4)의 종속문 “que María se enojara”는 화자에 의해 ‘참’이라는 전제에 의해 발화된 것이며, 이러한 ‘참’이라는 전제는 문장이 ‘부정’(negación)되거나 ‘의문’(interrogación)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5) No le sorprendió que María se enojara.

6) ¿ Le sorprendió que María se enojara? (Ibid.)

예문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리아가 화를 내었다’는 명제는 문장이 부정문으로 또는 의문문으로 바뀌어도 계속 ‘참’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정’의 경우에는

14) Ibid. Terrell, Tracy D., p.224 (“We use the term ASSERTION loosely to mean a proposition expressed in a declarative sentence. More specifically, the speaker claims the proposition which he has announced to be true to the best of the knowledge”)

문장이 ‘부정’이나 ‘의문’이라는 요소에 의해 변형이 되면 그 명제 자체의 진위여부도 함께 변화를 겪는다.

7) No me parece (creo, es seguro, etc.) que María vaya a la playa.

8) ¿Le parece (cree, es seguro, etc.) que María irá a la playa.?

예문 7, 8)에서 ‘마리아가 해변에 갈 것이다’라는 명제는 예문 2)에서처럼 더 이상 ‘단정적’인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와 ‘단정’이라는 두 개념은, Hooper와 Terrell에 의하면¹⁵⁾, 서반아어 동사의 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종속문의 법이 직설법이면 그 종속문은 ‘단정’적인 사실이고(표 1에서 (A)와 (B)에 해당), 반대로 주절에서 ‘단정’적인 사실이 부인될 경우 종속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된다는 것이다(표 1에서 (E)와 (F)). 또한, ‘전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의 명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화자가 종속문의 명제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경우와 명제가 표현하는 내용에 의해서 심리적 또는 실체적 영향을 받은 경우(표 1에서 (D))에는 접속법을, 또 이와 반대로 전혀 감정 또는 가치판단과 무관한 인지적 행위(acto mental)를 하는 경우에는(표 1에서 (C)) 직설법을 사용한다.

표 1에서 제시한 동사의 분류를 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Asertivos: ser seguro, parecer, ser verdad, creer, pensar.

9) Me parece (creo) que Ud. debe quedarse aquí.

10) No me parece (creo) que Ud. haya terminado su tarea.

(B) Informativos: decir, contar, leer, contestar.

11) Le dije que María no quería jugar tenis.

12) No me dijo que Ud. había terminado su trabajo.

(C) Acto mental: darse cuenta, aprender, tomar en consideración.

13) Me doy cuenta de lo que quieren.

14) María no se da cuenta de lo que le pedirán.

15) *Ibid.* Hooper와 Terrell, p. 484. 이들은 ‘단정’(aserción)과 ‘전제’(presuposición)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명사문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밖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한다.

a. Asertado (no presupuesto): Sé que va a ir con nosotros.

b. Presupuesto (no asertado): Es maravilloso que estudie tanto.

c. No asertado ni presupuesto: No es seguro que vaya con nosotros. (*Ibid.* 486)

Hooper와 Terrell은 이 세 가지 유형을 세분화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6가지 분류표를 만들었다.

(D) Explicativos: ser lástima, ser bueno, ser malo, ser interesante, alegrarse, estar contento.

- 15) Es una lástima que María no haya podido terminar a tiempo.
- 16) Me alegro de que María haya podido terminar a tiempo.
- 17) Estoy contento de que María haya venido a visitarnos.
- 18) No estoy contento de que María haya venido a visitarnos.

(E) Dubitativos: dudar, ser posible, negar, no parecer, no creer.

- 19) Dudo que hayan terminado ya.
- 20) No dudo que han terminado ya.

(F) Imperativos: querer, preferir, aconsejar, permitir, ser necesario.

- 21) Quiero que nos quedemos un rato más.
- 22) No quiero que nos quedemos ni un rato más.

종속문의 명제가 ‘단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절의 동사들은 ‘단정’동사들(verbos asertivos)과 ‘보고’동사(verbos informativos)들로 나뉘는데, 단정동사들은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예문 2 참조) 직접적인 단정(aserción directa)을 유도하고, 보고 동사들은 예문 11)에서처럼 간접적인 단정(aserción indirecta)을 유도한다. 종속문의 명제를 ‘단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맥에서도 직설법을 사용하고, 반대로 ‘단정’이 부인되는 경우(no aserción), 접속법을 사용한다. 바로 이렇게 단정이 부인되는 경우는 표 1의 (E)에 해당하는데, 예문 10)과 예문 19)는 의미적으로 동의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Dudo=no creo). 따라서 (E)의 ‘의구’동사들(verbos dubitativos)이 부인되는 경우는 ‘단정’동사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예문 20)의 종속문에는 직설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 단정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예문 12)에서처럼 종속문에서 직설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종속문의 명제가 ‘비단정’(no aserción)인 경우는 또한 (F)와 같이 ‘명령’을 의미하는 동사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유형에는 ‘의지’, ‘권고’, ‘영향’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예문 21)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이 ‘부정’되어도 종속문은 그대로 접속법을 유지한다.

앞서 ‘전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종속문의 명제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D)의 ‘설명’동사들(verbos explicativos)

처럼 화자의 가치판단이나 심리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접속법을 사용하며(예문 15, 16), (C)의 경우처럼 가치판단 및 감정의 표현과는 전혀 무관하게 화자의 인지적 행위를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직설법이 사용된다(예문 13). 또한 두 유형 모두 주문장이 ‘부정’되어도 종속문의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예문 14, 16, 18).

이와 같은 분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이고도 나름대로 강한 설명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서반아어의 동사 전체와 동사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뚝뚝그려 6가지로만 분류해야 한다는 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실제로 접속법과 직설법의 교호현상은 Hooper와 Terrell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사문에서 보다는, 단문 내지 형용사문에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자신들이 세운 이론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동사의 분류 과정과 예문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분히 ‘ad hoc’한 선택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 A. Manteca(1981)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Hooper와 Terrell의 동사 분류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23) a. Me parece que Ud. *debe* quedarse aquí.
 b. Me parece que Ud. *debiera* quedarse aquí.
 24) a. No me dijo que Juan *quería* estudiar en la biblioteca.
 b. No me dijo que Juan *quisiera* estudiar en la biblioteca. (Manteca p.41)

Hooper와 Terrell은 23)의 a, b예문에서 종속절을 이끄는 parecer동사를 ‘acto mental’을 수행하는 동사로 분류하여 오로지 직설법만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예문 23) b에서 보듯이, 분명히 접속법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들이 ‘Informativos’로 분류한 decir동사도 24)b의 경우처럼 종속절에서 접속법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asertivos’에 속하는 creer와 같은 동사도 예외적으로 접속법을 취하는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 25) a. Creo que *hubiera sido* mejor el otro.
 b. Creo que quizás *sea* oportuno decírselo.

25)의 a, b에서 a의 경우에는 가정문이 종속절내에 인용이 되었을 경우로, b는 종속절 내의 quizás와 같은 접속법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사가 동사에 선행함으로써 접속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속절을 유도하는 동사의 순수한 의미적 분류만으로 접속법과 직설법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고, 또 이와 같은 의미적 분류의 기준인 ‘presuposición’과 ‘aserción’이 순수한 의미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화용론적 개념(concepto pragmático)이라는 데에 더욱 문제점이 있다. 후일 Klein(1975, 58)이 지적하였듯이, 'aserción'은 근본적으로 발화 행위(speech act)와 관련된 개념으로 특정화자가 특정상황에서 만드는 문장이 실제로 발화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어이론상 "competenc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performance"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발화행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를 문법으로 기술한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Terrell과 Hooper의 이론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미비된 부분을 확대하여 수정한 Fukushima(1978)의 경우에도, 명사문에서의 접속법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주 문장 동사의 의미가 종속절의 'aserción'을 암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Fukushima는 'aserción'의 在(+), 不在(-)가 Terrell과 Hooper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분류에 따라 정도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표 1에서 'aserción'을 내포하는 (A)그룹의 동사들(asertivos)의 경우에 가장 높고(+++), (C)그룹은 (acto mental)은 가장 낮아서(+), García와 Terrell(1977)이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Fukushima(1978)의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A)그룹의 동사들이 법의 선택을 분명히 유지하는 것에 반해(직설법 90%; 접속법 10%), (C)그룹의 동사들은 법의 선택이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직설법 76.7%; 접속법 23.3%).¹⁶⁾

즉, 이와같이 직설법과 접속법의 사용자체가 동사의 분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그 출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Hooper와 Terrell의 당초 정리한 동사의 분류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분류 기준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16) Mary Allen García와 T. Terrell은 1977년 "Is the use of mood in Spanish subject to variable constraints"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Hagiwara)를 통해 Ciudad Juárez, México 그리고 El Paso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1974년 Hooper와 Terrell이 분류한 법의 교호와 관련된 6가지 유형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1에서 분류된 동사들이 이끄는 명사문에서 직설법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문 장 규 형	Ciudad Juárez의 제보자	El Paso의 제보자
(A), (B), (C)	81%	71%
(D)	48%	56%
(E)	25%	47%
(F)	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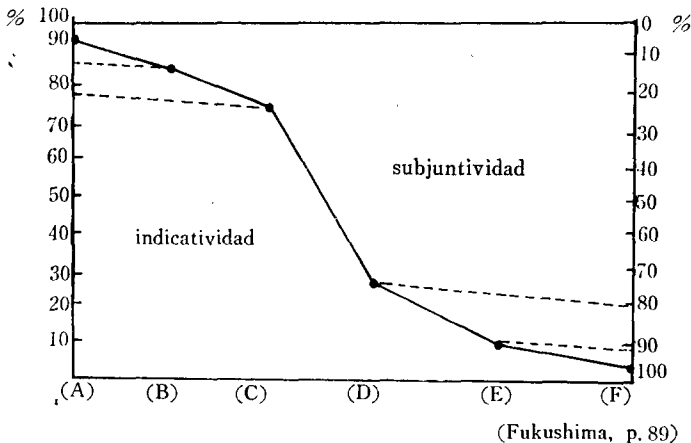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정'(aserción)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설법이 사용되고, 약할수록 접속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N. Fukushima도 1978년 유사한 설문조사를 하여 "La aserción y el modo español" (*Lingüística His-*

2.2. Klein(1975)

Hooper와 Terrell에 의해서 제시된 명사문에 있어서 주절의 동사의 의미와 종속절의 법과의 상관 관계는 Klein(1975)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Klein은 주절의 동사들의 의미분류상 기본개념인 ‘presuposición’과 ‘aserción’을 Kiparsky와 Kiparsky(1971) 및 Karttunen(1971)을 인용하여 재정립하고, 동사의 분류를 우선 크게 “asertivos”와 “no asertivos”로 둘로 나눈다. 이들 중, “asertivos”에는 Hooper와 Terrell과 마찬가지로 creer, suponer, parecer, admitir, insistir, señalar, contestar, sugerir 등이 속하고, “no asertivos”에는 ser (im)posible, ser (im)probable, dudar, negar, lamentar, olvidarse, ser lástima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각각 종속절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을 유도하고 다음과 같은 구문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 26) a. Creo que el brujo negará su petición.
 b. El brujo, creo, negará su petición.
 c. El brujo negará su petición, creo.
- 27) a. $\left\{ \begin{array}{l} \text{Es posible} \\ \text{Dudo} \\ \text{Es lástima} \\ \text{Basta} \end{array} \right\}$ que el brujo niegue su petición.
- b. * El brujo $\left\{ \begin{array}{l} \text{es posible} \\ \text{dudo} \\ \text{es lástima} \\ \text{basta}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niegue} \\ \text{negará} \end{array} \right\}$ su petición.

pánica, 1978, Vol. 1)에 발표하였는데 García와 Terrell이 얻은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 c. * El brujo $\left\{ \begin{array}{l} \text{niegue} \\ \text{negará} \end{array} \right\}$ su petición, $\left\{ \begin{array}{l} \text{es posible} \\ \text{dudo} \\ \text{es lástima} \\ \text{basta} \end{array} \right\}$. (Klein, p. 62)

“Asertivos”들은 26) b,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plement Preposing」을 통해, 주동사가 문중, 또는 문미에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문장의 문법성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나, “no-asertivos”들은 27) b, c에서처럼 주동사를 문중 또는 문미에 위치시킬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변형은 비문을 생성할 뿐이다.

그러나, “asertivos”들 중에서 일부는 ‘presuposición’이 약해져서, 경우에 따라 presuposición’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29)과 같은 경우이다.

- 28) Es posible que $\left\{ \begin{array}{l} \text{se alegren de} \\ \text{no te importe} \\ \text{sea relevante} \end{array} \right\}$ que yo no haya dicho la verdad.
- 29) Es posible que $\left\{ \begin{array}{l} \text{te des cuenta de} \\ \text{perciban} \\ \text{descubramos} \end{array} \right\}$ que cualquier injusticia es repugnante. (Klein, 54)

왜냐하면, 28)의 경우에는 다음의 30) a가 계속되어도 ‘presuposición’이 유지되지만 29)의 경우에는 30) b가 계속될 경우 화자의 입장에서 서로 정반대되는 두가지의 의미를 취하는 결과가 유도되기 때문이다.

- 30) a. Porque así es la cosa, efectivamente.
b. Aunque yo tiendo a creer que también hay justicias benéficas. (Klein, 54)

29)의 darse cuenta de, percibir, descubrir 등은 Kiparsky와 Kiparsky의 “factivos”와는 다른 것으로, Karttunen(1971)과 Hooper(1974)는 “semi-factivos”로 분류하는데 반해, Klein(1975)은 단호하게 이들은 어디까지나 “asertivos”안에 분류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presuposición’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Klein은 이들에게 “cognitivos”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며, “화자는 단순히 주절의 주어가 공감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것”¹⁷⁾으로 “factivos”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17) Klein, Philip Walter의 *Observation on the semantics of mood in Spanish* (Univ. of Washington, 1974, p.109)에서 “semi-factive”동사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assertive” 동사들로 분류될 수 있고,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cognitive’한 내용을 표현한다.

- a. Paula $\left\{ \begin{array}{l} \text{reconoce} \\ \text{se acuerda de} \\ \text{se da cuenta de} \end{array} \right\}$ que los bancos están cerrados hoy.

또한, Klein은 종속절에 모두 접속법만을 유도하는 “no asertivos”들을 “emotivos”와 “no emotivos”로 이분하고 “emotivos”들을 다시 “factivos”와 “no factivos(volitivos)”로 이분한다. Kiparsky와 Kiparsky(1971)에 의하면, “emotivos”들은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적 반응 또는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motividad’이라는 개념은 ‘factividad’이라는 개념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Klein에 의하면 모든 “factivos”들은 “emotivos”들이며, “semi-factivos”들은 어느 것도 “emotivos”들이 될 수 없다고 한다. “Factivos”에 해당하는 동사로서는 agradecer, aguantar, alegrarse de, deplorar, doler, lamentar 등이 있고, “no factivos (volitivos)”로서는 aconsejar, aspirar, bastar, convenir, disponer, exigir 등(Klein의 Apéndice II, A, B 참조)이 있다.

정의상, “factivos”들은 화자에 의해 사실(verdad)로 간주되는 종속절을 유도하는 동사들로서, 환언하자면, 화자가 종속문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논리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전제(presuponer)하는 동사들이다.¹⁸⁾

이와같은 성격의 “factivos”들은 Lleó(1974)가 잘 기술하였듯이, 그 종속문이 31), 33)에서 처럼 “el hecho de”와 “el”에 의해서 다시 유도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의 첨가가 비문을 생성할 때 32, 34)의 경우 그 주동사들은 “factivos”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1) a. Me sorprende el hecho de que Juan tome agua.

b. Lamento el hecho de que hayas fracasado.

32) a. * Es probable el hecho de que Juan toma agua.

b. * Supongo el hecho de que Juan toma agua.

33) a. Me sorprende el que Juan tome agua.

b. Lamento el que debas marcharte.

b. Paula no $\left\{ \begin{array}{l} \text{reconoce} \\ \text{se acuerda de} \\ \text{se da cuenta de} \end{array} \right\}$ que los bancos están cerrados hoy.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문에서 직설법을 취하고 있으며, “assertive”동사들처럼 문장이 ‘부정’(negación)되어도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b). 또한, 이들이 “assertive”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통사적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Complement preposing’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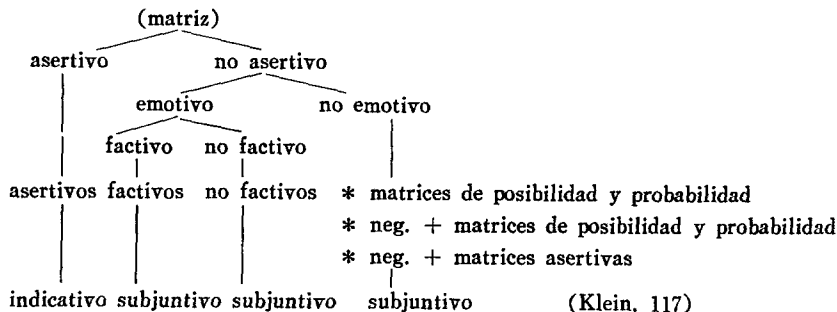
c. Los bancos están cerrados hoy, $\left\{ \begin{array}{l} \text{reconoce} \\ \text{se acuerda} \\ \text{se da cuenta} \end{array} \right\}$ Paula. (Ibid. 110)

18) Conxita Lleó는 “La presuposición y los verbos factivos en castellano”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Víctor Sánchez de Zavala, 1976)에서 ‘전제’(presuposición)에 대한 논리적 정의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Factive”동사들의 형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 34) a. * Es probable el que tome agua.
 b. * Supongo el que Juan toma agua. (Lleó, 126)

결과적으로, Klein에 의한 동사의 의미분류와 종속절의 법과는 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이밖에도 Klein은 종속절에 경우에 따라 직설법과 접속법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경우로 주절의 동사가 ‘aserción’과 ‘volición’을 함께 의미하는 “asertivos-volitivos”일 때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로서는 aceptar, admitir, avisar, conceder, gritar 등이 있다.

Klein이 자신의 *Observation on the semantics of mood in Spanish*(1975)를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서반아어의 법의 문제를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분석(análisis pragmático)하려 했던 것이나, 결과적으로 이미 Hooper와 Terrell(1974)에 의해서 다루어진 문제들을 재검토, 보완하여 종속절의 법과 관련된 주절의 동사들의 의미분류를 새로이 했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자체가 화용론적이라면, 화자의 입장을 심분 고려한 ‘presuposición’과 ‘aserción’의 논리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석은 다분히 통사론적(análisis sintáctico)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개개동사의 통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동반하는 법의 성격을 정의하는 Bello식의 판단과 비교할 때, 과연 얼마나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3. 법의 화용론적 해석

지금까지의 접속법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한 연구는 그 이론적 배경이 전통문법이건 구조 혹은 기능문법이건 간에, 아니면 그것이 생성 및 변형문법에 기본을 두었던 간에 그 흐름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언어능력

(competencia lingüística)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판단기준으로서 접속법 및 직설법을 선택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방향과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미 사용된 용례를 대상으로 그 해석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서는 그 생성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Rivero(1977)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고, E. Bustos(1986)의 *Pragmática del Español*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Bustos(1986)가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어차피 화용론이란 화·청자들이 발화한 문장들의 해석을 통제하는 원칙 또는 규칙을 다루는 분야이며, 또 이는 그 발화문의 화용론적 해석이 발화된 표층구조의 추상적 의미 단위의 해석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¹⁹⁾ 일반적 이해가 수반된다고 할 때, 접속법의 해석을 문법적 태두리 안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문법외적 상황에 대한 분석, 즉 발화 행위상의 화자의 의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Bustos(1986, 214)는, “화용론적 시각에서 한 문장내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가 가능할 때 그 어느 하나의 사용은 문맥(화자의 발화 상황)상의 차이”이며, “화자가 직설법을 택할 때는 그 문장이 ‘참’(verdad)이라는 ‘확신’ 또는 ‘믿음’(creencia)에 동참하는 것을 표현하고, 반대로 접속법을 택할 때는 그와 같은 ‘확신’ 또는 ‘믿음’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neutralidad)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35) Los alumnos admiten que el profesor ha probado el teorema.

36) Los alumnos admiten que el profesor haya probado el teorema.

예문 35)와 36)에서처럼 종속절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을 똑같이 취할 수 있는 동사로는 admitir 외에도 parecer, confiar, comprender, entender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종속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아래 37), 38)처럼 나타난다.

37) Los alumnos admiten α y yo creo α .

19) “La pragmática se ocupa de los principios y/o las reglas que regulan la interpretación de las preferencias de hablantes oyentes. Esta concepción supone por tanto que las interpretaciones de las preferencias de los hablantes oyentes no tienen por qué coincidir con las interpretaciones semánticas de las entidades abstractas de las cuales esas preferencias son una realización” (E. Bustos, *Pragmática del español*, 1986, p.11).

38) Los alumnos admiten α y yo no sé si α .

(* α 는 여기에서 종속문을 표현한다.) (*Ibid.*)

따라서 직설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문 35),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 자신도 종속문의 내용이 ‘참’이라는 ‘믿음’에 동참(*yo creo α*)하는 것으로 화용론적 기능에 있어 문맥의 흐름상 종속문의 내용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Los alumnos*)뿐 아니라 화자 자신(*el yo hablante*)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접속법을 사용한 경우에는(예문 36)), 주어진 문맥의 진위 여부에 화자 자신이 전혀 참여하지 않음(*yo no sé si 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화용론적 해석은 Rivero(1977, 41)가 지적했던 것처럼, 위 35), 36)의 예문에 ‘부정’(negación) 및 ‘의문’(interrogación)의 요소가 개입되어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39) a. Los alumnos no admiten que el profesor ha probado el teorema.

b. Los alumnos no admiten que el profesor haya probado el teorema.

40) a. ¿ Admiten los alumnos que el profesor ha probado el teorema.?

b. ¿ Admiten los alumnos que el profesor haya probado el teorema.? (Bustos, 219)

즉, 예문 39), 40)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는 그 해석상 37), 38)과 일치한다. 그러나, 주절의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뀌면, 문장의 화용적 구조는 변하게 된다.

41) a. Admito que el profesor ha probado el teorema.

b. Admito que el profesor haya probado el teorema.

42) a. No admito que el profesor ha probado el teorema.

b. No admito que el profesor haya probado el teorema. (*Ibid.*)

예문 41), 42)에서는 종속문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화자가 직접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각각, 43)과 44)같은 해석구조를 취하게 된다.

43) a. Yo admito α y creo que α .

b. Yo admito α y no sé si α .

44) a. Yo no admito α y creo que α .

b. Yo no admito α y no sé si α .

문제점은 여기에서 ‘부정의 요소가 개입된 42)a의 해석구조인 44)b는 α (종속문)의 진위여부에 대해 화자의 입장이 불분명해지는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직설법을 사용함으로써 도입되는 ‘믿음’(‘*creo que α* ’)과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말한 주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no admito α* ’)은 양립될 수 없다. 따라

서, 42)a의 문법성은 의심의 여지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화자는 42)a보다 42)b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creer*, *opinar*가 1인칭으로 부정문을 형성할 때 비문이 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

45) * No creo que ha probado el teorema.

46) * No opino que es el momento propiado. (Bustos, 221)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이 1인칭이 아닌 형태로 주문장에 출현할 때, 법의 교호가 가능할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문법성을 잃지 않는다.

47) a. Los alumnos no creen que ha probado el teorema.

b. Los alumnos no creen que haya probado el teorema.

48) a. El secretario no opina que sea el momento decisivo.

b. El secretario no opina que es el momento decisivo. (*Ibid.*)

따라서, 주절이 긍정문일 때 종속절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가 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절이 부정문일 때 그러한 교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화자의 입장에서 직설법 또는 접속법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인칭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자가 직접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1인칭으로 주문장을 이끌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법과 직설법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자유 의사이나, 화자가 1인칭으로 직접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법의 선택이 문맥의 흐름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화용적 조건에 필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3. 관계문의 법

2.1과 2.2에서 우리가 살펴본 법의 교호성 및 접속법의 출현 배경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명사문의 분석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관계문(*oraciones de relativo*)에 있어서의 법의 교호문제이다.

관계문에 있어서 법의 교호현상은 주로 제한적 관계문(*subordinadas de relativo restrictivas*)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명사문의 경우와는 달리 주동사의 통사적·의미적 기능이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전혀 무관하거나 또는 관련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축소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관계문의 법의 교호는 명사문에 비

- 관계문에서의 법의 교호는 일반적으로 49)~52)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사를 형성하는 명사통합소(sintagma nominal)가 ‘부정’(indeterminado 또는 indefinido)적인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부정 명사통합소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불투명’(opacos)할 때 그러한 법의 교호가 허용된다고 한다.²⁰⁾ Manteca(1981, 62)에 의하면, Quine(1968)이 ‘불투명’(opacidad)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한 동사들의 목적어는 ‘불투명’(opaco) 또는 ‘투명’(transparente)한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특히 불투명한 의미에 있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부정 명사통합소는 다분히 ‘주관적’ 또는 ‘의도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즉, 49)의 선행사 역할의 부정 명사통합소 “una secretaria”의 ‘불투명’한 의미는 ‘Quiero una secretaria’, 즉 ‘me deseo como teniendo secretaria’로서 비지시적(no referencial)이며, ‘투명’한 의미는 바로 ‘hay una secretaria tal que yo quiero’로서 지시적(referencial)인 의미에 해당한다.

53) a. Una secretaria que sabe ruso busca empleo interesante.

a. * En la agencia me aconsejaron esta criada que $\left\{ \begin{array}{c} \text{sabe} \\ \text{sepa} \end{array} \right\}$ cocinar.

- b. * Una secretaria que sepa ruso busca un empleo interesante.
 54) a. Un millonario que tiene yate necesita marineros para formar tripulación.
 b. * Un millonario que tenga yate necesita marineros para formar tripulación
 (Ibid. 62)

53)의 b와 54)의 b가 각각 비문인 까닭은 통사적으로 주어의 위치(posición sintáctica de sujeto)는 ‘지시적’(referencial)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지시적’ 의미의 “una secretaria”나 “un millonario”는 그들을 한정하는 형용사절에 ‘비지시적’(no referencial) 의미와 관련되는 접속법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명’ 동사들(verbos transparentes 또는 no opacos)의 목적어가 선행사 역할을 하는 관계문에서 법의 교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

- 55) a. Conozco una secretaria que sabe ruso.
 b. * Conozco una secretaria que sepa ruso.
 56) a. Me han hablado de un millonario que tiene yate.
 b. * Me han hablado de un millonario que tenga yate. (Ibid. 63)

Conocer, hablar de 등과 같은 ‘투명’ 동사들은 ‘불투명’ 동사들과는 반대로 그 취하는 목적어가 ‘지시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선행사로 하여 이끌린 관계문에 55)의 b 및 56)의 b와 같은 접속법이 올 수 없다.

한편, Rivero(1977, 55)는 49)~52)이르는 예문들과 같이 법의 교호가 이루어지는 관계문에서 직설법을 사용하는 경우 ‘노어를 아는 여비서의 존재가 긍정적’이라는 전제(presuposición existencial positiva)가 성립되고, 반대로 접속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Rivero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 57) a. Los que se consideran capaces,* si es que existe alguno, serán los mejores.
 b. Los que se consideren capaces, si es que existe alguno, serán los mejores.
 58) a. Ningún obrero que se considere capaz lo hará.
 b. * Ningún obrero que se considera capaz lo hará. (Rivero, 55)

즉, 57)a의 비문법성은 첫 문장에서 ‘능력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한 후에, 삽입절에서 그러한 전제에 의문을 다시 표현함으로써 의미적으로 모순되는 문맥의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이며, 58)b의 경우에는 그러한 존재를 부인하는 표현(ningún)과 동시에 시인하는 표현(considera: 직설법)을 함께 한 문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Rivero가 주장하는 ‘不在’(inexistencia) 또는 ‘非存在’(no existencia)를 내포하며 접속법을 사용한 57)b와 58)a의 화용론적 전제(presuposición pragmática)를 자세히 살펴보면, 57)a, b의 대립도 또 58)a, b의 대립도 선행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지시물(referente)의 존재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과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59) Hay individuos que se consideran capaces.

60) Hay obrero que se considera capaz.

57)b와 58)a는 각각 59)과 60)을 전제하며, 나아가서는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자의 전제(presuposición del hablante)를 표현한다.

61) Hay individuos de los que no sé si se consideran capaces.

62) Hay obrero del que no sé si se considera capaz.

59), 60) 및 61), 62)에서 알 수 있듯이, 직설법이 사용되든 아니면 접속법이 사용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선행사에 의해 표현되는 지시물의 존재는 이미 전제된 것이며, 단지 접속법이 사용될 때에는 화자가 서술된 진위여부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Rivero에 의하여 비문으로 간주된 57)a와 58)b의 문법성은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선행사의 ‘부정’(negación) 또는 ‘부분부정’이 법의 교호성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유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ustos(1986, 204)는 Rivero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63) a. Ningún alumno que suspenda dejará la carrera.

b. Ningún alumno que suspende dejará la carrera.

64) a. No todos los alumnos que suspendan dejará la carrera.

b. No todos los alumnos que suspenden dejará la carrera.

Rivero에 의하면 41)a는 비문이 될 것이고, 64)a는 그 문법적 ‘용인성’(aceptabilidad)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Bustos의 언어능력은 이들을 문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구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이유는 “ningún”이 외형적으로 부정양화사(cuantificador negativo)이지만, 양화사들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상호연계성(interdefinibilidad)을 고려할 때, “ningún”은 “todos...no”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todos...no”가 법의 교호를 허용한다면 그 동의어인 “ningún”이 법의 교호를 불허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4. 법의 교호성

우리가 앞서 2장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화자의 법의 선택에 관한 화용론적 해석은 직설법을 선택할 경우, 화자는 그러한 법으로 이끌린 구문의 사실여부에 관해 동일한 견해를 갖고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접속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여부에 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장에서 다룬 바 있는, Hooper와 Terrell의 법의 교호와 관련된 동사의 의미 분류(표 1 참조)와 Klein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표 2 참조)을 비교하여 볼 때 결국 두 분류는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ooper와 Terrell의 분류는 외형상 ‘단정’(aserción)과 ‘전제’(presuposición)의 유무에 따라 법의 교호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Fukushima가 지적한 것처럼 ‘단정’의 정도(grado de aserción)에 따라 법의 교호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정’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설법의 선택이 명백해지고, 또 반대로 ‘단정’의 정도가 약해지면(---) 접속법의 선택이 확실해지며, ‘단정’의 정도가 중간인 경우(‘전제’가 있는 경우: +, -), 접속법과 직설법의 사용이 불분명해 소위 서반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vacilación)이 유도된다.

한편, Klein이 제시한 새로운 동사분류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단정’동사(verbos asertivos)와 ‘비단정’동사(verbos no asertivos)로 크게 이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Klein은 ‘비단정’동사들을 다시 ‘감정’동사(verbos emotivos)와 ‘비감정’동사(verbos no emotivos)로 분류하고, 그 중 ‘감정’동사를 “factivos”와 “no factivos”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법의 교호여부와 관련지을 때, 궁극적으로 ‘단정’동사들은 직설법을, ‘비단정’동사들은 접속법을 각각 유도하는 것으로 대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명사문에서 법의 교호여부는 다음과 같은 대립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동사의 의미 (sentido del verbo matriz)	법 (modo)	화자의 의도 (intención del hablante)
‘단정’ (aserción)	직설법 (indicativo)	(제시된 명제의)용인 (admisión)
‘비단정’ (no aserción)	접속법 (subjuntivo)	중립적 입장 (actitud neutral)

표 3에서 우리가 제시한 법의 대립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정’ 및 ‘비단정’ 동사들이 ‘부정’ (negación) 또는 ‘의문’ (interrogación)의 요소의 개입으로 법의 교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65) a. Es seguro que Juan ha llegado esta mañana.
 b. No es seguro que Juan haya llegado esta mañana.
 c. ¿ Es seguro que Juan ha llegado esta mañana?
- 66) a. Me parece que Juan es inteligente.
 b. No me parece que Juan sea inteligente.
 c. ¿ Te parece que Juan es inteligente?

65)b와 6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동사를 이루는 ‘단정’ 동사의 의미가 부정어의 개입으로 ‘단정’ (aserción)에서 ‘비단정’으로 바뀌면서, 종속문의 동사의 형태도 직설법에서 접속법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65)c와 66)c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문의 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²¹⁾

그러나, ‘비단정’ 동사의 경우에는 ‘단정’ 동사의 경우처럼 ‘부정’의 요소의 개입에 일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67) a. Dudo que lo hayan leído.
 b. No dudo que lo han leído.
 c. ¿ Dudas que lo hayan leído?
- 68) a. Estoy contento que lo hayan terminado.
 b. No estoy contento que lo hayan terminado.
 c. ¿ Estás contento que lo hayan terminado?
- 69) a. Quiero que vayas tú solo.
 b. No quiero que vayas tú solo.
 c. ¿ Quieres que vaya yo solo?
- 70) a. Es posible que lo vendan
 b. No es posible que lo vendan.
 c. ¿ Es posible que lo vendan?

67)의 경우에는 주절에 ‘의구’ 동사(verbo dubitativo)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의구’ 동사의 ‘부정’은 결국 ‘단정’ 동사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no dudar=creer), ‘부정’ 요소의 개입으로 종속문은 접속법에서 직설법으로 바뀌지만, 68), 69), 70)

21) T. Terrell (1976, 233)은 주절의 동사가 종속문이 제시하는 명제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접속법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Crees que gane mañana?

에서 볼 수 있듯이, “factivo”동사(68), “volitivo”동사(69) 및 “no emotivo”동사(70)의 경우에는, 동사자체의 ‘비단정’의 의도가 약화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부정 되어도 67)의 경우처럼 의미적으로 ‘단정’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종속문의법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비단정’동사의 의문문 또한 법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법의 교호가 주어진 문장에서 ‘의문’요소의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한편, 관계문에서 법의 교호여부는 명사문의 경우와는 양상이 상이하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사 역할을 수행하는 명사통합소의 ‘지시성’(referencialidad)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물론, 선행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들이 ‘불투명’동사(verbos opacos: buscar, querer, intentar, necesitar)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의 선택이 화자의 재량으로 가능하며(Busco una secretaria que sabe/sepa ruso), ‘투명’동사(verbos transparentes: conocer, hablar, tener)의 경우에는 접속법이 허용되지 않는(*conozco una secretaria que sepa ruso)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의 교호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맥이라 할 수 있다.

즉, 관계문에서 주절동사(verbo de matriz)와 종속문의 동사(verbos subordinados)는 의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하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선행사 기능의 명사 통합소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절의 동사의 의미적 영향도 바로 이 중간에 놓인 명사통합소의 의미(특히 ‘지시성’여부)에 일단 여과된 후에 종속문의 동사에 이르기 때문에, 법의 교호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문은 일종의 독립적 단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문에 있어서 법의 교호는 직접적으로 화자의 의도(intención del hablante)에 의해 재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법의 선택문제는 역으로 법의 해석문제(특히 화용적 해석)와 직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결 론

본고를 통해서 우리는 서반아어 동사의 중요한 범주인 법의 교호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반아어의 법의 교호 혹은 부분적으로 접속법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일찌기 소위 전통문법이라 불리우는 A. Bello의 *Gramática Castellana* 이래로 수많은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거론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통사론적 관점에서 주절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동사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종속절의 법을 주절 동사의 기능에 국한하여 결정하는 식의 방법론으로 분석해 왔다. 이러한 분석은 본문에서 여러 번

에 걸쳐 비판한 것처럼 언어의 사용 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측면으로 기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설법과 접속법의 사용을 'realidad'/'irrealidad'의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게 했다. 이와 같은 대립은 구조주의가 발달한 1960년대까지도 계속 효율적인 설명의 척도로 존재해 왔지만 일반언어학의 방법론이 획기적인 진보를 보이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이 생성의미론에까지 확대되면서, 서반아어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대립현상을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의미론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의미론적 관점은 다시 통사론적 근거를 찾아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의미적 분류에 통사적 또는 문법적 근거를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서반아어의 법의 교호를 생성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여러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서는 문법적 범주를 벗어나 화용론적 관점에서 법의 교호를 설명해 보려 하였다. 우리의 관심은 법의 교호에 있어서 생성적인 측면보다는 해석적인 측면에 비중을 둔 것으로 서반아어의 법의 교호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법의 자유로운 교호는 2장과 3장에서 명사문과 관계문을 다룰 때 얻어진 결론으로, 관계문은 명사문에 비하여 법의 교호가 비교적 화자의 선택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교호가 이루어진 문맥이 명사문이건 관계문이건 상관없이 화자의 법의 선택은 일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화자가 발화하려는 종속문의 명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화자가 공감하여 명제가 제시하는 내용에 화자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화자가 하나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설법을 (*aumento en la consistencia del contexto*), 또 반대로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 주어진 명제의 진위여부에 어떠한 형태의 반대도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법의 교호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법의 분포(*distribución*)가 불균형한 문맥에 대하여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법의 교호의 판단문제이지만 그 판단여부를 해석상의 문제로 축소하여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고가 간과하고 있는 법의 불균형 분포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은 후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참 고 문 헌

- Alarcos Llorach, E., *Gramática estructural*, Madrid, 1969.
- _____,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Madrid, 1978.
- Badía Margarit, A., "El subjuntivo de subordinación en las lenguas romances y especialmente en Iberorrománico," *RFE*, XXXVII, 1953.
- Bello, A.,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Act., Tenerife, 1981.
- Bolinger, D., "One subjunctive or two," *H*, 1974.
- Bustos Eduardo, *Pragmática del español*, UNED, Madrid, 1986.
- Demonte, V., *La subordinación sustantiva*, Madrid, 1977.
- Fukushima, N., "La aserción y el modo español," *Lingüística Hispánica*, Vol. 1, Japón, pp.75-94, 1978.
- García, M.E. & Terrell, T., "Is the use of mood in Spanish subject to variable constraints,"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Hagiwara, M.P. Newbury House Publishers, Massachusetts, 1977.
- Gili Gaya, S.,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1964.
- Giménez Resano, G., "Precisiones semánticas sobre las oraciones de relativo en español," *LEA* IX/2, 1987, pp.207-226.
- Hadlich, R.A., *A Transformational Grammar of Spanish*, Nueva Jersey, 1971.
- Hooper, J.B., "On assertive predicates," *UCLA papers in syntax*, 1974.
- _____, & Terrell, T., "A semantically based analysis of mood in Spanish," *H*, 57, 1974.
- Karttunen, L., "Implicative verbs," *Lg*, 47, 1971.
- _____,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LI*, IV, 1973.
- Keenan, E.,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en *LI*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1976.
- Kiparsky, P.,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La*, 1968.
- _____, & Kiparsky, C., "Fact," en *Bierwisch, M.*, y Heidolph, E., *Progress in Linguistics*, La Haya, 1971.
- Klein, P.W., *Observations on the semantics of mood in Spanish* (tesis inédita), Washington, 1974.

- Lakoff, R., *Abstract Syntax and Latin Complementation*, Cambridge, Mass., 1968.
- Lenz, R., *La oración y sus partes*, Madrid, 1920.
- Lleó, C., "La presuposición y los verbos factivos en castellano," en Sánchez de Zavala (comp.),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Barcelona, 1976.
- Manteca Alonso, Cortés, A., "Nota sobre la presuposición en castellano," en Sánchez de Zavala (comp.), 1976.
- _____ *Gramática del subjuntivo*, Cátedra, Madrid, 1981.
- Mariner, S., "Estructura de la categoría verbal modo en latín clásico," *Emerita*, 1947.
- _____ *Triple noción en la categoría modal castellana*, RFE, 1971.
- Quine, W.v.O., *Palabra y objeto*, Barcelona, 1968.
- Real Academia Española,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1973.
- Rivero, M.L., *Spanish quantifiers* (tesis), U. de Rochester, 1968.
- _____ "Mood and presupposition in spanish," *FoLa*, VII, 1971.
- _____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Madrid, 1977.
- Ruipérez, M.S., "Reseña de K. Togeby, 1953," *Word*, X, 1954.
- Stockwell, R.P., y otros, *The grammatical structures of English and Spanish*, Chicago, 1965.
- Takagaki, T., "Subjunctive as the marker of subordination," *Hispania* 67, 1984, pp. 248-256.
- Terrell, T., "Assertion and Presupposition in Spanish," en Luján y Hensey (eds.),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1976.
- Togeby, K., *Mode, aspect et temps en espagnol*, Copenhagen, 1953.

La Alternancia Modal Indicativo-Subjuntivo en el Verbo Español

Kim, Un-Kyung

A través de este trabajo hemos tratado de estudiar de manera sucinta la alternancia modal del verbo español. Los problemas relacionados con la alternancia modal o los usos del subjuntivo han sido estudiados por varios gramáticos de tendencia tradicional, entre ellos, A. Bello y Gili Gaya, y la mayoría de ellos se ha centrado en las funciones sintácticas de los verbos.

A saber, para ellos el modo de los subordinados se rige por el sentido del verbo de la oración matriz o principal. Sin embargo, esta consideración, como hemos indicado en varias ocasiones en nuestro trabajo, es una tergiversación de la realidad lingüística, ya que ha conducido el problema de la alternancia modal a una falsa dicotomía oposicional de 'realidad'/'irrealidad'. Esta oposición ha sido mantenida como un criterio válido hasta los años 60, década en la que el método estructuralista estaba plenamente aceptada y, a la vez, puesto en práctica dentro del ámbito académico de la lingüística hispánica.

Con la introducción de novedades innovadoras en los métodos de investigación lingüística de la década de los 70, y con la expansión de la teoría sintáctica generativo-transformacional a la semántica generativa, los estudios sobre la oposición de subjuntivo e indicativo del verbo español empezaron a abandonar su rígido punto de vista sintáctico y aceptar la visión semántica, naturalmente generativa, pero buscando en ocasiones el apoyo sintáctico para su análisis sintáctico.

En el presente trabajo hemos examinado algunos estudios de método semántico-generativo (Hooper y Terrell, Klein, Rivero, etc.) y después hemos expandido el análisis semántico del modo aplicando inclusive el criterio pragmático, ya que creemos que la alternancia modal en español es relativamente libre, y por tanto, al tratarla debemos dar énfasis a su aspecto interpretativo más que al generativo.

Esta consideración es un resultado deducido de nuestro análisis del problema de la alternancia modal en las oraciones completivas y en las de relativo restrictivas (respectivamente en el capítulo 2 y 3). Además, en las oraciones de relativo restrictivas, más que en las completivas, la alternancia modal parece depender de la voluntad del hablante y de allí, hemos podido llegar a la conclusión de que la selección del modo por parte del hablante es constante y libre bien en las oraciones completivas o bien en las de relativo restrictivas siempre que la alternancia modal sea admitida. Esto quiere decir que el hablante emplea el indicativo cuando comparte la verdad o la falsedad de la proposición expresada por la oración subordinada y así quiere formar parte del grupo que cree en esta proposición haciendo posible el aumento en la consistencia del contexto; por el contrario, usa el subjuntivo cuando no hace ningún juicio sobre la verdad o falsedad de la proposición dada y toma actitud neutral, es decir, el hablante no comparte ni está de acuerdo con la verdad o falsedad de la proposición.

Sin embargo, en nuestro trabajo no están incluidos los contextos de distribución defectiva en los que no se produce la alternancia modal, ya que hemos tratado el problema de la alternancia modal reduciéndolo al aspecto interpretativo. Por tanto, el problema de la distribución defectiva del modo que pasamos por alto lo dejamos para otra ocasión.